

한수원 원자력환경기술원 박종운 박사 국제인명센터 IBC '아르키메데스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종재)은 원자력환경기술원 박종운 박사(43, 원자력공학)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에서 선정하는 아르키메데스상(Archimedes Award)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마퀴스 후즈후'와 '미국인명정보기관'(ABI)과 더불어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평가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 국제인명센터(IBC)는 "박종운 박사가 과학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2006년도 업적이 탁월한 원자력분야의 과학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종운 박사는 1996년 선임연구원으로 입사 후 10년간 신형 원전인 APR1400 개발의 안전설계, 특히 응용된 원자로심을 원자로 내부에 가두는 핵심기술을 APR1400에 최초 적용하는 연구 및 설계구현을 통해 원자력 안전성 분석 분야에서 국제적인 원자력공학기술자로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원자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재순환성능개선 등 원전운영의 국제적 안전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아르키메데스상('The Archimedes Award')은 IBC가 2006년을 'Global Year of Science(세계 과학의 해)' 선포하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며 발명이었던 아르키메데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일생동안 뛰어난 업적을 이룬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다.

중부발전, 스페인 ACCIONA ENERGIA, S.A.사와 신재생에너지 상호협력양해각서체결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장섭)은 11월 2일 삼성동 본사 회의실에서 스페인 ACCIONA ENERGIA, S.A.사와 신재생에너지 정

보, 운전 및 유지기술 교류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대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보교류 및 운전·유지보수 기술교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스페인의 ACCIONA ENERGIA, S.A.사는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11개국에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우리회사 양양풍력발전소에 1.5MW급 풍력발전기 2기를 제작 공급한 바 있다.

중부발전은 이번 협약체결로 양양풍력발전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기술자립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부발전은 2008년까지 정부와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약 1,3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4만4천kW를 개발중에 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약 2,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총 13만8천kW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Global Clean Power Company"의 비전을 구현할 계획이다.

남동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남동발전(사장 박희갑)이 지난 23일 '빛과 희망이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 Initiative,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센터)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됐으며, 기업이념인 '인간존중, 자연애호, 사회공헌'을 바탕으로 최고·최상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남동발전의 활동모습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적 성장, 사회적 책임, 환경적 보호 등 세 분야를 동시에 고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기회요소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패러다임이다.

박희갑 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첫째,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경쟁우위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둘째,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이관계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셋째, 인간중심의 경영을 통해 직구성원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넷째, 환경가치를 창조하는 환경친화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중장기 전략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연계해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원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며 “‘Global Power Leader’로의 성장과 함께 ‘빛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최초발전개시...기념식 가져 태안화력 7호기 본격 상업운전 앞뒤

태안화력 7호기가 최초발전을 시작했다.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종신)은 태안화력 7호기 최초발전을



개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두산중공업(주), 한국전력기술(주) 임직원 등 12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태안화력 현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2003년 11월 착공한 태안화력 7, 8호기는 이번 7호기 최초발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위해 최종 점검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또 올 12월에 예정된 8호기 보일러 최초 점화 등 목표공정을 준수하기 위해 서부발전은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김종신 사장은 “태안화력 7,8호기의 환경친화성과 최첨단 발전소로의 상징성, 현재 추진중인 군산복합화력과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을 언급하며 “이들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효율적인 건설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서발전, 국내최초 복합화력 주제어설비 국산화 성공

- 일산복합에 설치, 복합화력부문 국산 제어설비 시대 열려 -

한국동서발전(사장 이용오)이 국내 최초로 복합화력 주제어설비를 국산화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이번 국산화는 지난 5월 동서발전이 LS산전(사장 김정만)과 ‘복합화력 주제어설비 국산화에 관한 기술협약’을 체결해 LS산전이 자체 연구개발한 주제어설비 개발품을 일산복합화력에 적용해 이뤄낸 성과다.

총 45억원이 투자된 이 사업으로 동서발전은 국산화 대체 개발로 약 25억원의 경영수익 효과, DLN(Dry Low Nox: 건식저녹스버너) 개조공사와 동시시행으로 용량요금 수익증대,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국내 제어분야의 핵심기술 자립기반의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발은 핵심전자카드 공급중단에 따른 설비안정화 대책이 요구돼 2004년 6월 연구개발과제 인건 제출을 거쳐 같은해 11월 연구개발과제 승인, 기술 검토를 바탕으로 설계와 제작 완

료, 올해 5월 19일 부터 8월 6일까지 80일간의 공사를 통해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현재 일산복합에 제어설비(제어케비넷 100면, 전자카드 3,000여매)를 설치, 운영 중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발전소의 주 제어설비는 인체의 신경계통과 같다”며 “이번 개발은 국내 복합화력 주 제어설비 국산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LS산전은 향후 제어설비 개발품 관련 해외진출 시 동서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서발전은 10월 31일 일산복합화력발전처에서 우종천 기술본부장과 LS산전 김춘식 전무 등 관련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 제어설비 국산개발 기념식’을 거행했다.

두산중공업, 친환경 발전소 기술 확보

- 세계 1위 업체인 FW사와 ‘유동층보일러’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내외 발전시장 공략 가속화

두산중공업(사장 이남두)이 친환경 발전소 기술로 꼽히는 ‘유동층 보일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포스터 휠러(Foster Wheeler)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친환경 보일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포스터 휠러와 미국 현지에서 유동층 보일러 기술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유동층 보일러 프로젝트에서 상호협력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동층(Circulating Fluidized-Bed) 보일러는, 기존 발전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미분탄 보일러와 달리,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을 가장 적게 발생시키는 온도인 850℃ 부근에서 연소온도를 유지하며 연료를 입자형태로 순환시켜 연소시키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보일러로

불린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만큼 탈황설비나 탈질설비 같은 환경설비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전비용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최근 교토협약 등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최근 새롭게 건설되는 화력발전소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낮은 유동층 보일러를 적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유동층 보일러는 미분탄 보일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저질탄을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 다량의 저질탄을 보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층 보일러는 미분탄 보일러와 달리 입자순환기술을 통해 저질탄을 사용해도 연소효율을 유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두산중공업 발전BG장 홍성은 부사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럽, 미국 등 환경에 대한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기술인 유동층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량의 저질탄을 보유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 및 인도에서 자국 내 저질탄을 통한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두산중공업은 유동층 보일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포스터 휠러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향후 15년간 두산중공업이 수주하는 플랜트에 기술협력을 하고 점차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두산중공업이 별도의 로열티 지불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